

‘돈이 많아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부부들의 삶이 지옥같다’ 라면 ‘하나님을 모시고 알콩달콩 사는 부부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돌아가신 조집사님 가정은 이미 천국이었고, 천국에서 사신 것입니다. 부부, 부모, 자식, 교인들 사이나 직장에서도 천국은 자기를 낮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큰 자로 인정받는 곳입니다(마 18:4). 천국은 경쟁과 비교,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곳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이며, 서로 그렇게 대해주고 위해주는 곳입니다(마 20:1-14). 그래서 장애우들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라도 환영받는 곳이 그 곳입니다(마 22:9). 다만 천국에서는 바른 행실이 요구됩니다(마 22:11).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나 천국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관계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순간 바로 그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살아 있는 우리들

이 가야 할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지만, 지금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는 순간 순간 경험하는 천국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요 들어간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유의 기적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유희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때마다 천국은 갑자기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갑니다. 천국이 갑자기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바른 행실로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할 때 기쁨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마 25:1-13).

고 조용재 집사님, 고 배형규 목사님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천국이 임할 때 바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하면 우렁찬 울음과 함께 태어납니다. 태어 때 이미 죽은 아기는 태어나도 사산이요 유산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을 경험하는 이들로써 육신의 삶을 마감하며 천국에 갑니다. 현재 부정과 불의로 사는 죽은 아이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은 상태로 이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한해 동안 천국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KUMC 101

감리교회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UMMS photo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the Methodist Collection of Drew University Library. Photo #02-509

존 웨슬리가 신성클럽을 조직하여 회원들을 훈련하며 성령운동을 전개하던 1720년,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methodist,” 곧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부쳐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번역하여 사용하는 “감리교회”라는 단어가 “methodist”라는 말에서 직접 온 것은 아니다.

지금의 연합감리교회가 한국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감리교단의 이름은 영어로 Methodist Episcopal Church였다. 이것은 북감리교회의 공식명칭이었으며, 남감리교회는 여기에 “south”란 단어를 더해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methodist”가 아닌 “episcopal”이란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교단의 이름을 “감리”교회라고 번역한 것이다.

“episcopal”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로서 ‘어찌나 머리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곧, ‘감독 혹은 감리한다’는 말이다. 지금 연합감리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감독을 헬라말로 “episcopos”라고 한다. 영어로는 “overseer,” “supervisor” 즉 ‘관리, 감독자’라는 뜻이다. 지금도 어떤 건축물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설계되고 지어졌는지, 이를 관리, 감독, 감시하는 일을 “감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는 뜻이며, 마치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한다는 뜻에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United Methodist Church”란 교단 이름에서 “episcopal”이란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흔히 “methodist”를 “감리”로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다.

김찬희 박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 CA

